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춘천지부를 찾아서

취재 : 이 원 복



춘천지부의 미래를 설계하는 지부의 임원진

경춘국도를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인 춘천.

옛부터 호반의 도시로 명명되어 깨끗한 의암호와 함께 자리잡은 이곳은 관광의 도시로만 알려져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춘천의 돼지 사육두수가 4만여두에 이른다고 말하면 놀랄 것이다.

이번 달에는 강원도 지역의 양돈선

봉지역으로 발돋움 하기 위한 기지개를 펴는 춘천지부를 찾아보았다.

“양돈산업 경영개선”, “종돈개량 능력향상”, “유통개선 소비확대” 흔히 보이는 양돈표어 같지만 이것은 춘천지부의 3대 목표이다.

지난 '83년 3월 24일 양돈에 뜻을 둔 춘천지역 원로 양돈인들이 「춘천양돈협회」라는 이름으로 발

을 내딛은 후 1대 정화진 지부장 때에 군납에 의존하던 양돈산업이 화천지역과 분리되면서 자치적인 조직을 갖추는데 힘을 쓴 기간이었다.

또한 2·3대 지부장을 지낸 박승명씨도 춘천양돈협회의 주춧돌이 되었던 장본인이다.

이때부터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사료와 약품의 공동구입, 돼지의 공동출하 등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품에 있어서는 5~8% 정도 약품대를 인하시켰고, 사료의 공동구입은 회원들에게 10~11% 정도로 사료가격을 인하시켜 현재도 춘천지부 회원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사업이 되었다.

또한, 위의 두가지 사업보다 좀 더 늦게 시작한 돼지계통출하이다. 춘천지역엔 돼지 사육두수가 4만여두에 이르러 지역내에서는 2만여두만 소비가 되고 2만여두는 외지판매가 불가피 한 실정이다.

이리하여 춘천지부에서는 먼저 회원들에게 계통출하에 대한 모든



삼천리모텔에서 가진 지부장 이취임식 모습

의문점을 교육시킨후 부분적으로 서울 도매시장에 출하를 해오다가 지난 '87년 9월 16일 돼지의 계통 출하를 위해 공동판매차량(4.5톤 복사, 2.5톤 마이티, 대여차량 2.5톤) 3대를 구입하여 월 800~1,000여두 까지 계통출하를 실시하고 있다.

계통출하를 실시함으로써 회원 들만큼은 지역내의 중간상인들에게 농간당하지 않고 있으며, 연 1만 여두를 출하하는 것중에서 회원이 5천 5백두를 출하하고, 비회원들에게도 4천 5백두 정도 기회를 주어 협회 가입을 유도해 가고 있다.

현재, 이런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 춘천시지역의 양돈인들이 지부 가입을 하려고 문의를 하고 있으나, 지부 집행부에서는 회원의 자질문제를 고려하여 무작정 회원으로 가입시키지 않고 주위의 회원과

주요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원에 가입시킨다고 한다.

1, 2, 3대 회장 재직시 지부기반을 이룩한 춘천시부회는 지난 '88년 2월 10일 제5차 정기총회에서 김해수 회원을 제4대 지부장으로 선출하고, 이제는 회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김해수 지부장은 지부사무실을 농장사무실과 겸할 정도로 지부사무실을 떠날 줄 모를 정도로 열의가 대단하며 전대의 지부장들의 노고에 결코 실망을 드리는 지부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단단한 각오를 피력했다.

양돈업을 생업으로 하고 살고있는 회원들에게 이제는 협회를 꼭 필요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뛰는 춘천시부의 집행부는 김해수 지부장의 모든 임원들이 매일 협회 사

무실에서 2시간씩 협회 업무를 상의하며 지부 안팎의 업무를 보살피고 있다.

특히, 이애자 홍보이사는 제6회 전국양돈인대회 때 모범양돈농가상을 받은 바도 있지만, 이 지역에서는 남자에 뒤지지 않는 양돈인으로 평이 나 있고 회원들의 가입 유로도 모두 도맡아 하고 있다.

이와같이 협회의 조직관리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춘천시부의 업무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회원들의 협회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특히, 회원들의 참여도를 분석키 위해 개인카드를 작성 출석율을 항상 표시하고 있다. 이 사실은 춘천시부 회원들이 모르게 비밀리에 조사했다고 한다.

둘째, 약품·사료·기자재 공동구매와 계통출하를 더욱 활성화 시켜 협회에 가입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셋째, 회원의 임무를 강조하여 회원이 있어야만 협회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매일 월례회의 때 교육시키고 우수한 강사진을 초빙, 양돈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었다.

이외에도 경조사에의 참여, 회원들의 생일 때 축전 띄우기, 명절때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어려움을 상의하는 등 가까이 할 수 있는 회원들의 분위기를 유도하여 주고 있으며, 지난 구정때에는 김해수 지부장과 김만경 총무가 회원의 집을 모두 방문하여 선물을 전달해 주고



돼지고기 소비·홍보에 앞장설 춘천시부 부인회

개인적 면담으로 협회 업무를 상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다.

옛날 어린 시절 학교 다닐때 담임선생님을 모시고 가정방문을 다녔던 생각을 되새길 때 지역내에서 꼭 필요한 행사인 것 같았다.

70년대와 80년대 초에는 춘천지역은 우리나라 양돈의 후진지역이었다고 말하는 김만경 총무, 그러나 지금은 양돈선진 지역을 많이 방문하여보고, 아직 뒤떨어진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거의 같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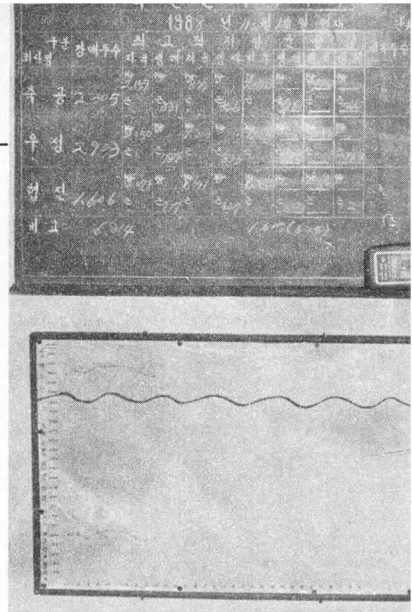
또한, 김정소 경매때 김해수 지부장이 거의 참석하지 않을 때가 없는 것을 보면 종돈개량에 있어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를 한눈에 알 수 있다.

'85년 지부사무실에 화재라는 화마, 돈가의 하락, 지역적 특성, 군

납의 어려움 등 많은 고난속에서 성장해 온 춘천지부, 부인회를 조직, 소비·홍보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며, 특히 회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협회가 되기 위해 약품사업을 활발히 진행시키겠다고 한다.

“하면 된다”는 구시대적인 생각에서 탈피하고 “해야 된다”는 새로운 굳은 의지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춘천지부의 회원들 “나 혼자 짚어야”하는 생각들이 불황이란 구렁텅이 속으로 양돈인들을 떨어 뜨린다고 하며, 협회가 무엇을 해 줄 것인가 보다는 나 자신을 위하여 협회에 참석할 때 협회는 발전할 것이라고 하고, 또한, 집행부는 계속적인 열의로 회원들의 참여를 계속 유도시킬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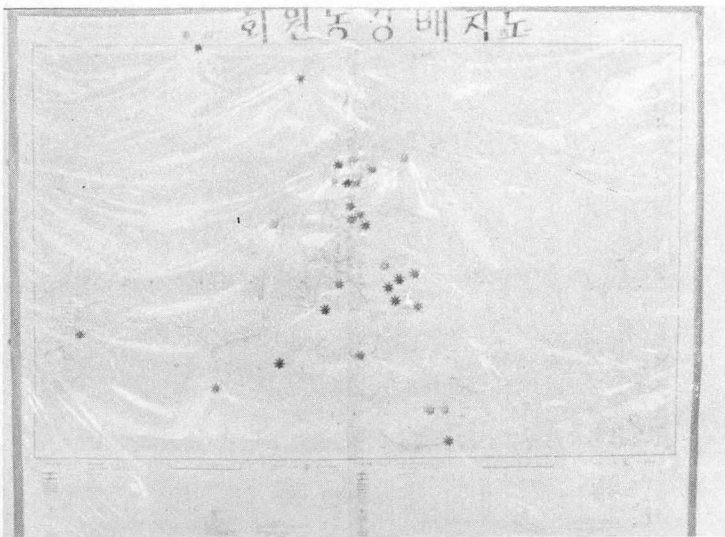
끝으로 춘천지부는 중앙회에서 약품과 사료의 원가를 파악하여 주



축산물거래시세도 상세하게

어야 한다며, 이런 사실만 알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낫은 환경속에서 양돈을 경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한갓 비탈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강원도, 이제는 어느 지부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지부가 되기 위해 오늘도 달리고 있는 춘천지부, 회원들에게 본지의 지부탐방이 용기가 되었으면 하겠다.*



회원들의 농장의 위치를 지도에 정확히 표시

- 춘천지부 임직원 현황
- ▷지 부 장 : 김해수(초원농장)
 - ▷부지부장 : 윤주설(곰실농장)
 - ▷홍보이사 : 이애자(새벽농장)
 - ▷지도이사 : 윤석호(석호농장)
 - ▷관리이사 : 심상욱(삼일농장)
 - ▷판매이사 : 김재식(팔미농장)
 - ▷총무이사 : 김만경(춘암축산)
 - ▷감 사 : 권영도(인정농장), 이태근(우두농장)
 - ▷고 문 : 최하길(청구농장), 정화진(정진농장), 박승명(대명농장)
 - ▷여 직 원 : 민은미